

● 찬송가 384장(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절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울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 찬송가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1절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절 :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절 : 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가정예배의 의의와 인도 지침>

설날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날입니다. 단,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설날이 세상 사람들처럼 조상들에게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날 당일에 가족들이 다함께 모였으면 가족 중 가장이나 가족의 신앙주 되시는 분이 본 유인물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전체 인도는 한 분이 하시되, 예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순서들은 가족마다 돌아가면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본 예식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사의 형식처럼 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거나 선조들에게 절을 하는 일은 삼가해주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음식을 차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6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2026년 2월 17일(화) 음력 1월 1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설 가정예배

목 도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설날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도 시 ‘민수기 6장 24-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여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앙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84장(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 도
성경봉독  (시편 127:1-2)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평안한 가정’

나눔 시간 1) 가족별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감사한 것)
2) 올해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나눕니다.

찬 송 ...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인도자

다 함께

다 함께
기 도 자
다 함께

인도자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평안한 가정’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불드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의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시고 세우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아이 함께하신다고 해서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불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며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돋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 될 때 진정으로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아이 지키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경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정의 안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염려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맡겨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밤낮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